

# 대규모 수해 재발 막는다...맞춤형 홍수대책 마련

### 환경부 '2020년 홍수피해 방지 위한 항구대책 마련 연구' 용역 발주 취약지구 조사분석·주민 의견 수렴...피해 주민들, 조속한 배상 촉구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홍수와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 지역에 특화된 수해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정부가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맞춰 환경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역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지역민 20여명으로 구성된 구례 주민 대표들이 국감이 열리는 세종시로 이동,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속한 배상과 국감에 구례 주민대표를 증인으로 참석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도 벌였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수해피해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항구 대책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 용역은 작년 8월 전국 곳곳의 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중호우 피해가 자연적 요인뿐 아니라 댐 운영 관리 및 하천 정비 등의 부실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수해 현황을 조사하면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해의 원인은 ▲집중 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담-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용역은 작년 수해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분석을 추가로 진행한 뒤,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중인 수해복구사업 및 국가-지방하천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미반영된 홍수 피해지구 및 기타 취약지구를 조사·분석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된다.

특히 현장 상세조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해외사례 평가 등도 함께 취합해 시

사점을 도출하고, 이상 홍수 대응 및 회복력 확보가 가능한 하천 유역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홍수 대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정부는 수해원인조사보고서 상의 158개 피해지구, 그리고 이번 현장 조사 시 발굴된 취약지구 등에 대해 유형별로 각각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고, 각 수위관측소의 개선방안 및 연속 강우를 고려한 항구적인 홍수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에 대해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전국 단위의 수재 관련 대책은 부처별로 계속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계속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마련 연구 용역이 수해원인 조사서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수해 피해지역 주민

들의 시선은 굽지 않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담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발표한 수해원인 조사 최종보고서는 수해의 주요 원인과 책임 주체가 빠진 책임 회피성 '맹탕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고 조속한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례군 주민대표들은 "환경분쟁 조정 회의에 실무 담당자가 아닌 정부와 기관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100% 신속한 배상안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들은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풍암저수지 방역 봉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광주시지부(지부장 오수명)와 서구지회(지회장 박정원) 회원 20여 명은 최근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내 주민 산책로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지방보훈청 제공)



서구청소년수련관 '뚝뚝! 쓸모있는 재탄생' 전시회  
광주시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최근 낡은 탁자 등 버려지는 폐 목재를 이용해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뚝뚝! : 쓸모있는 재탄생' 작품 전시회를 열었다. (광주시 서구청소년수련관 제공)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최근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푸른 하늘의 날'은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기오염에 대한 각성과 감축 활동에 대한 국가적 참여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이래, 매년 9월 7일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환경부 주최로 대기환경과 기후변화, 대기오염 절감에 대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남도 미세먼지 배출량조사 등 대기·미세먼지·그린 뉴딜 관련 환경 연구과제 242건을 발굴·시행하는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다.

또 지역 대기환경문제를 지역민이 참여해 해결하는 지역참여형사업 24건을 추진해 대기환경 활동가 및 단체가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으며, 1431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기환경기술지원을 통해 대기·악취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에 기여했다.

김은식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전남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은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문제는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자리 잡았고 정부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의 환경실천 과제인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소외되지 않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유아 꿈동산 숲 놀이교실' 이론·체험활동

### 북구 어린이집 대상 15일까지

광주시 북구가 지역내 어린이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15일까지 북구내 어린이집 10곳의 2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아 꿈동산 숲 놀이교실'을 운영한다.

광주호호수생태원지구센터, 숲도락과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이론과 자연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환경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1교시 생태계 관찰 실습인 광주호호수생태원 둘러

보기와 2교시 광주호호수생태원지구센터에서 퍼즐화분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연생태계를 직접 보고 이해하는 것이 환경보호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자연 및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무등산평촌명품마을 체험환경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충장동 '마을상주단' 무연고 고독사 마지막 동행

### 독거 어르신 '장례절차 지원'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마을상주단' 이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1인 가구가 늘어나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독거어르신의 장례를 지원한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충장동은 사망한 관내 기초생활수급 독거 어르신을 '무연고 장례절차 지원'에 따라 '마을 상주단'이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충장동 주민자치회(회장 여근수)는 올해부터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의 고독사에 대비 마을 상주단을 운영 중이다.

마을상주단은 최근까지 독거노인 및 청장년 1인

세대 등 3가구를 대상으로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과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가족해체와 경제적 빈곤 문제로 유가족들이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해 무연고 장례서비스는 마을과 이웃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동구는 설명했다.

임경숙 충장동장은 "1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게 충장동 주민자치회와 행정복지센터가 상주가 돼 보내드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할인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